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전주'

시·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기념식·특강·유공자 표창 등 수여

전주시가 여성단체 등 시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은아)는 지난 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온은아 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전주를 주제로 진행된 기념행사는 △기념식 △양성평등 실천 결의 낭독 및 퍼포먼스 △홍보영상 상영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양성평등 및 4대 폭력 예방 홍보부스 △여성단체 활동 사진전 △여성 취업 정보 나눔터 △전주시 여성 재도전사관학교 플라마켓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확산에 공헌한 정보 나눔터 △전주시 여성 재도전사관학교 플라마켓 등의 부대 행사를 수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전주시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온은아 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위한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희망의 빛을 밝히는 평등 날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은은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회 각 분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양성

평등의 가치와 공감대가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

등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1일~7일)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해 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매년 기념행사와 유공자 격려 등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운전원 소통·격려

이석현 경영본부장, 현장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운전원 복지 향상 힘쓸 것"

혁신동주민센터, 주민들과 기지제 환경정비 '구슬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주민센터는 지난 6일 깨끗하고 쾌적한 기지제 산책로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날 가을맞이 기지제 환경정비에 참여한 혁신동 주민들과 혁신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기지제 데크길 주변 산책로와 체육시설 주변의 음료컵, 담배꽂이 등을 수거하고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 동시에 기지제 내 열순공원 농구대 그물망 보수, 데크 및 벤치 정비 등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정비요청했다.

환경정비에 참여한 주민 백모 씨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다음에도 꼭 참여하여 쾌적한 산책길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추석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지콜' 운전원들과 임원 간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에 따르면 이석현 경영본부장은 전날 임원진을 대표해 이지콜 운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연중무휴로 운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이지콜 운전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등 임원진과의 소통으로 운전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지콜 운전원들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근무한다.

이번 추석부터 효자공원 묘지와 전주시내 추모시설을 운영하는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로 휠체어 장애인에 성묘 지원에 나섰다.

이석현 본부장은 "사명감과 봉사 정



전주시설공단 이석현 경영본부장이 이지콜 운전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신으로 헌신하는 이지콜 운전원 여러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교통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장 콜택시 58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임차 택시 25대, 순환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다.

마약 없는 밝은 전주 만들기 최선

전주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추진

전주시는 지난 6일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 마약류 명예지도원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이 많은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야간 시간을 이용해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시민들이 약물중독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물 관련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해 홍보 활동에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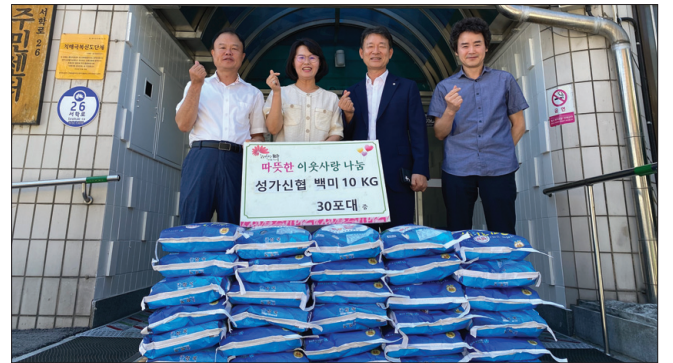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의약 단체와 청소년단체, 소비자단체, 마약류 관련 단체 등 관계자 11명을 마약류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그동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활동과 더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한 전주시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마약 중독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마약 관련 범죄와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마약 중독의 해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마약류 사용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마약류 사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약 없는 밝은 전주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성가신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백미 10kg 320포(8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주성가신협, 전주 곳곳에 '사랑의 백미' 기탁

전주성가신협(이사장 신용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동서학동주민센터(30포)를 비롯해 서서학동주민센터(30포), 평화1동주민센터(30포), 평화2동주민센터(30포), 서학동성당(30포), 평화동성당(30포), 권상연성당(30포), 문정성당(30포), 사회복지시설 등(80포)에 백미10kg 320포(8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주성가신협은 매년 설과 추석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백미를 기탁하는 등 훈훈한 정을 전해 왔으며 지난 50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꾸준한 후원으로 기부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용균 이사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